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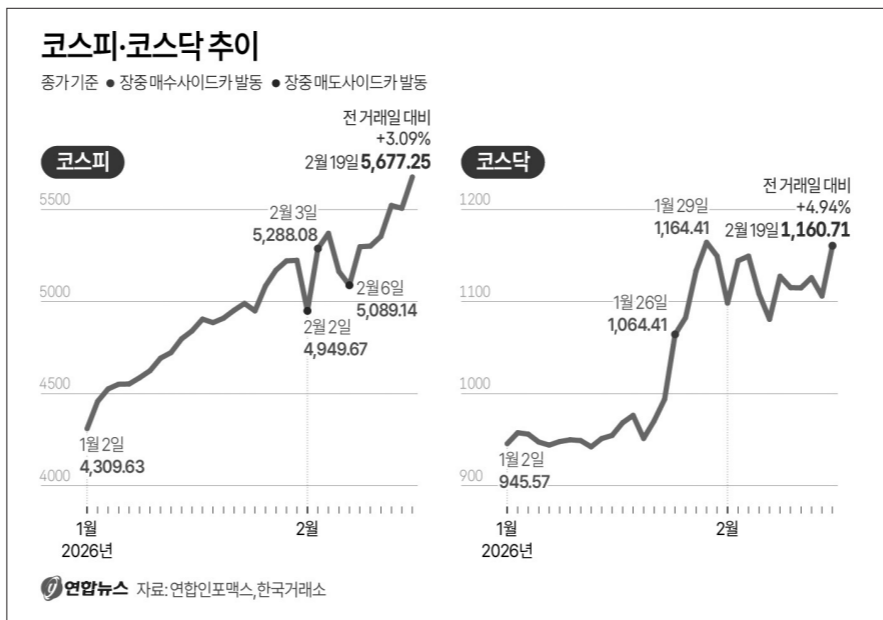
질주하는 코스피, 5600선 안착...‘19만전자’ 달성

연휴 끝나자마자 3%↑ 기관 1조6000억 순매수

코스닥 5% 급등...올해 두번째 매수 사이드카

코스피가 19일 설 황금연휴가 끝나자마자 3% 급등하며 5600선에 가뭄이 풀렸다. 코스닥도 5% 가까이 급등하며 최근 다소 주춤했던 상승세에 다시 불을 붙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70.24p(3.09%) 오른 5677.25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135.08p(2.45%) 오른 5642.09로 출발한 뒤 한때 5681.65까지 뛴기도 했다. 이에 코스피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2월 12일·5522.27)와 장중 사상 최고치(2월 13일·5583.74)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선 기관이 홀로 1조 6381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9180억원과

8608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 3704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3236억원과 484억원 매도 우위였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동반 상승한 채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0.26%,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0.56% 오른 채 장을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0.78%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96% 뛰었다. 다만,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거론됐다는 소식에 장 중 한때 상승분을 큰 폭으로 반납하는 등 변동성이 상당한 모양새였다.

그런 분위기 속에 출발한 국내 증시에서 대장주 삼성전자는 4.86% 급등한 19만원에 거래를 마무리하며 ‘18만전자’를 돌파

한지 1거래일만에 종가 기준 ‘19만전자’를 달성했다.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코스피에 수혜가 기대되는 증권주도 동반 상승했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은 전장 대비 14.45% 오른 7만500원에 거래를 마치고 장중에는 한때 7만2700원까지 치솟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화투자증권(29.89%)은 상한가이자 52주 신고가인 9560원에, 키움증권(3.83%), 유진투자증권(25.31%)도 줄줄이 올라 한때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이 상승하며 코스피 상승에 기여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54.63p(4.94%) 급등한 1160.71에 마감했다. 지수는 16.12p(1.46%) 오른 1122.20으로 개장한 뒤 오전 10시 전후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대거 순매수에 힘입어 급격히 오름폭을 확대했다.

이에 오전 10시41분께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발동시점의 코스닥150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20.40p(6.31%) 오른 2027.20이었고, 현물인 코스닥150지수는 119.39p(6.27%) 오른 2021.35로 집계됐다. 코스닥은 사이드카 발동 이후에도 강세를 이어갔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요 동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조430억원과 8571억원을 순매수하며 코스닥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은 홀로 1조8308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이날 외국인의 코스닥 순매수 규모는 일별 순매수 최대기록(2023년 7월 26일·8817억원)에 바짝 다가선 수준이었다. 연합뉴스 기사 djawody0316@gwangnam.co.kr



광주은행은 최근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광주송정역과 광주중합버스터미널을 비롯해 전남 목포역·순천역, 서울 용산역 등에서 ‘1인 1계좌 갖기’ 등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응원하는 기두캠페인을 동시 진행했다.

광주은행, 전남·광주행정통합 응원 캠페인

1인 1계좌 갖기·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전남·광주행정통합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광주은행이 ‘1인 1계좌 갖기’ 등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응원하는 기두캠페인에 나섰다. 캠페인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광주송정역과 광주중합버스터미널을 비롯해 전남 목포역·순천역, 서울 용산역 등 주

요 교통 거점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정 일선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과 본부 부서장, 광주·전남 및 수도권 영업점 직원 등 약 180명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하고 안내 리플렛과 기념품을 전달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1인 1계좌 갖기’ 캠페인은 지역은행 이용 확대를 통해 지역 자금이 다시 지

역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광주은행은 지역민의 금융거래가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은행은 지난날 29일 ‘전남광주특별시 사랑통장’을 출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신규 개설 고객에게 최고 연 0.30%의 이벤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지역민 1인 1계좌 갖기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해당 통장을 신규 개설할 경우

기부금이 적립돼 금융상품 이용과 동시에 지역사회 나눔에도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병행해 제도의 취지와 참여 방법, 세액공제 혜택 및 답례품 제공 등 실질적인 정보를 안내했다. 타 지역 거주자도 자신의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며 지역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지역 금융은 곧 지역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밀착형 활동과 공익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신세계, 배당 확대에 주가 강세

시가배당률 7.13%...결산 이후 11.3% 상승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와중에도 배당을 늘린 광주신세계 주가가 강세다. 19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이사회에서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2400원 현금배당이 결정됐다. 이는 2024년과 지난해 2200원이었던 배당금에서 200원 늘어난 것이다. 시가배당률은 2024년 7.03%, 지난해 7.59%, 올해 7.13%로 7%가 넘는 높은 배당률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총 배당금도 지난해 167억 7978만원에서 183억521만원으로 약 9% 증가했다. 특히 이번 배당 확대는 총 3조원 규모가 투자되는 광주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

이 본격 추진되는 시점과 맞물려 의미를 더한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2033년까지 터미널을 교통시설과 업무, 주거, 문화, 상업, 의료, 교육 기능을 집약한 ‘직주락 콤파트 시티’ 개념을 도입해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지난 11일 3만5000원이었던 주가는 12일 3만 7700원으로 시가배당률을 웃도는 7.71%가 상승하고 이날도 전 거래일보다 3.32% 오른 3만8950원으로 마감했다. 배당기준일은 다음달 31일이고 배당지급 예정일은 오는 4월 20일이다. 연합뉴스 기사 djawody0316@gwangnam.co.kr

IPO 준비 비상장사 공시 위반 급증

금감원, 중징계 비중 확대...98건 전년비 180%↑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를 했던 88곳에 전년보다 13건 증가한 총 143건을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회사 중 상장법인은 31곳(35.2%), 비상장법인은 57곳(64.8%)으로 공시 경향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더 많았다. 가장 위반이 잦았던 유형은 증권신고서(10억원 이하 공모의 경우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으로 98건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35건) 대비 180%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비상장사의 발행공시 위반이 8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이후 증시 상승 분위기 속에서 기업공개(IPO)를 계획하는 비상장사가 증가했고, 상장 준비 과정에서 과거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 위반이 다수 확인됐다. 조치 유형별로는 과징금·증권발행제한·과태료 등 중조치가 79건(55.2%)으로 경고·주의 등 경조치 64건(44.8%)보다 많았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경조치 비중이 70~80% 수준이었던 것과 대비된다. 금감원은 IPO를 준비 중인 비상장사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기사

전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27일까지 일자리창출·사업개발비·시설장비·시군특화사업

530여 기업에 총 49억원... 지속·안정적 성장과 자립 지원

전남도는 오는 27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시설장비 지원, 시군 지역 특화사업 지원, 4개 분야로 나눠 530여 기업에 총 4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27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규모다. 특히 올해는 기업 선호도가 높은 인건

비에 국비 지원이 재개되고, 도 자체 지원도 확대해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진입 초기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고용 1명당 월 50만~90만원을 최대 3년간 인건비로 지원하며, 도 자체 지원사업인 전남형 일자리창출사업은 일반인력과 전문인력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품질개선, 디자인과 시제품 제작, 홍보비 등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시설장비 사업은 기업이 신규 시설장비를 구입하거나 노후 시설장비 교체 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군 실정에 맞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판로 개척, 인지도 제고,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등 시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에 있는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을 신청하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일반인력과 전문인력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창출사업은 시군에서 별도로 모집해 지원한다. 사업개발비와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지정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나 시군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오는 5월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발표 예정이다. 선준식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이라는 정책 방향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환경이 점차 마련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전남도에서도 기업이 체감할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코스닥 부실기업 지배주주 같으면 통합심사”

거래소, 신속퇴출 계획 발표
상장폐지 집중관리단도 신설

지배주주가 동일한 여러 기업에서 동시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는 통합·일괄 심사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퇴출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19일 ‘2026년 코스닥 시장 부실기업 신속 퇴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기업 중 지배주주가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는 통합심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최근 실질심사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심사업무 지원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대 1년 반까지 부여할 수 있

는 개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개선기간을 부여할 때도 개선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을 엄격히 검증해 시장 잔류기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결과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계획 이행 점검도 강화된다. 개선기간 중인 실질심사대상 기업이라고 해도 상장 적격성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영업 지속성 등을 상실했다고 보이면 시장에서 조기 퇴출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이달 9일 상장폐지 담당 부서에 기획심사팀을 신설했고, 코스닥시장 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 올해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